

❖ 요나 4 장, ‘요나의 불평과 박 넝쿨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

들어가기

본 장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하신 일로 불평하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박 넝쿨로 요나를 교훈하시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회개시켜 구원함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불평 (1-4 절)

1)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 1 절 주목! =>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 특별히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는 말은 ‘매우 못 마땅하게 여겼다’는 뜻!
- 곧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곧 니느웨 성을 40 일만에 멸망시키시지 않고 용서하신 일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분노했다는 것!
- 이와 같은 요나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 자기 기준만 생각한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태도였음!
-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생각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불평하고 성낸 일들은 없는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의하는 성도들이 되자!

▪ 그럼 요나는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용서하신 일을 못 마땅하게 여기며 분노했을까?

-
-
-

2) 분노한 요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나요? (2-3 절)

①. 우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향해 불평!

• 2 절 주목!

“... ,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 2 절에서 우리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
=> 곧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성 (앗수르) 사람들이 흑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하심을 받아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이 싫었기 때문!!
=> 결국 요나는 철저한 ‘자기 민족주의’,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

②. 그냥 자신을 죽여달라며 투정!

- 3 절 주목!, “...,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 참고로 열왕기상 19 장 4 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아’도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길 기도한 적이 있음! 그럼 당시 ‘엘리아’와 오늘의 ‘요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엘리아’: ‘이세벨’ 여왕의 협박 => 심신이 연약+절망 => 자신은 무기력/무의미한 존재!!
- ‘요나’?
-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불평하고 성내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4 절)

- 4 절 주목!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나 하시니라”

- 곧 화를 내며 불평하는 요나의 태도가 옳지 않다고 책망하신 것!
- 바른 성도는 설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 생각/기준/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함!
- Why?
○ 이사야 55 장 8-9 절
“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로마서 8 장 28 절
"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4) 그럼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 5 절 주목!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①. 성 밖으로 나가 성 동편에 (성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음!

②. 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켜 봄!

- ✓ 결국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흑시라도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

=> 이와 같은 요나의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숨어 있어서 때로는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혹은 평소 좋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의 불행)을 지켜보면서 그저 가쉽꺼리로만 삼았던 일들이 있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자. 그리고 형제는 물론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자.

2. 박 넝쿨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6-11 절)

1) 하나님은 요나가 만든 초막 부근에 박 넝쿨 하나를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6 절)

▪ 6 절 주목!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였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 ‘박 넝쿨’은 히브리어 ‘키카온’이란 말로, 넝쿨 종류의 한해살이 식물 (한국:‘아주까리’)
- 그런데 이 박 넝쿨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자라나게 하신 것!
 - 어떤 학자들은 요나가 이 박 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한 것’을 볼 때, 그가 지은 초막은 이다 시들어버렸을 것이라고 주장!
 - 따라서 하나님은 내리 쬐는 뜨거운 태양 빛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위해 빠른 속도로 박 넝쿨 하나를 자라나게 하셨고, 이를 통해 요나의 잘못된 마음과 태도를 깨우쳐 주셨다는 것!
 -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와 긍휼하심을 깨닫자!
 - 비록 우리가 잘못된 태도와 마음으로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모른척하지 않으시고 우선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시는 분!
 - 이때 바른 믿음의 성도는 이와 같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
- => 그러나 당시 ‘요나’는 박 넝쿨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기 보다는 그저 급히 태양 빛을 가리워주는 박 넝쿨 그 자체만 보면서 기뻐했다는 것!!

2) 다음 날 새벽, 하나님은 요나가 위안을 얻은 그 박 넝쿨을 어떻게 하셨나요? (7-8 절)

- 7 절: ‘벌레 한 마리가 박 넝쿨을 갉아 먹어 시들게 하심!’
- 8 절: 뿐만 아니라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심으로써 요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심!
 - 이로 인해 8 절 주목하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고 기록!
 - ‘요나가 혼미하여’졌다는 말은 ‘마치 열사병에 걸려 정신을 잃을 만큼 기력이 급격히 쇠하여졌다는 뜻’

3) 그럼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나요? (9-11 절)

①. 요나의 교만함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꺾으시며 고쳐주시기 위함!

• 9 절 주목!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나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 곧 당시 요나는 박 넝쿨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기 보다는 사라진 박 넝쿨만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하신 일에 지속적으로 화만 내고 있었던 것!
 -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치 않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교만함 때문!
 - 특별히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성내는 것이 옳고 당연하다’고 투정하는 요나의 태도가 얼마나 교만한가?
 - 이런 교만을 꺾기 위해 하나님은 박 넝쿨이 시들게 하심으로써 요나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만드신 것이 아닐까?
 - ②. 니느웨 백성들이 박 넝쿨 하나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 (10-11 절)
 - 하나님은 먼저 요나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자라난 박 넝쿨 하나를 죽기까지 아끼고 있음을 지적하신 후, 니느웨 사람들이 박 넝쿨 하나보다 더 귀한 존재란 사실을 깨우쳐 주심!
 - 11 절 주목!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어찌 박 넝쿨 하나와 비교할 수 있을까?
 -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경히 여기는 세상의 풍토를 항상 경계하며 분명하게 반대의 뜻을 나타내야 함!
 (ex: 이번 주(19-21 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릴 ‘중국 인체의 신비’ 전시회가 스위스 기독교 단체의 반대로 무산! But 영국,이탈리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선 성행!)
 - 뿐만 아니라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항상 깨닫고 복음전파를 통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할 것!
- ❖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서 든 생각과 결단한 내용들이 있다면?